

교인 500명 이상 대형교회 담임목사 2명 중 1명 ‘번아웃 상태’!

‘번아웃’이란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며 무력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인(장년) 500명 이상 대형교회 목회자(담임목사) 2명 중 1명이 현재 이런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이 상황에서 ‘다음세대 교육’과 ‘전도’가 걱정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목회자가 가장 많이 꼽은 현재 교회의 어려운 점’이다. 그 외에 ‘교인들의 주일성수 인식 약화’, ‘출석교인 수 감소’, ‘재정의 어려움’ 등도 차례로 응답되었는데, 문제들이 연결성을 갖고, 서로 간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향후 출석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다’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목회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넘버즈 <148호>는 목회자 대상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본 보고서를 통해 한국교회 목회 현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개교회의 목회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결과3 (목회자 대상)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한국교회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였다. 금번 조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목회자 대상 2차례 추적조사에 이은 3차 조사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점에서 한국교회 변화를 파악하고, 목회 현장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 개요

구분	내용
• 조사 대상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 조사 지역	전국
• 조사 방법	총회 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조사(모바일로 URL 발송)
• 표본 규모	총 981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모집단의 교회 규모 및 지역 분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0\%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모집단의 교회 규모(출석 교인 수) 및 지역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함
• 조사 기간	2022년 4월 27일 ~ 4월 30일 (4일간)
• 조사 주관	예장통합총회 / 기아대책 / 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자료 해석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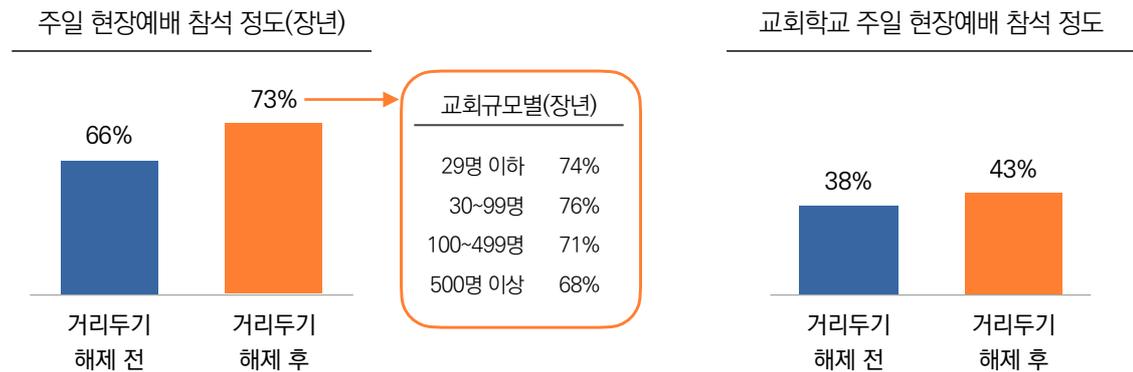
- 1) 본 조사는 예장통합교단 담임목사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한국교회 전체 교단의 목회자를 조사하지 않았음에 유의할 것
- 2) 그러나 국내 메이저 교단 중 하나인 예장통합교단의 모집단 자료를 근거로 지역별/교회 규모별 비례할당하여 표본 추출하였기 때문에 어느정도 한국교회 목회자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01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 코로나 이전 대비 장년 73%, 교회학교 43%!

- ▶ 코로나19 이전(100% 기준) 대비 장년의 주일 현장 예배 참여 수준을 거리두기 해제 전후로 살펴본 결과, 해제 전 66%, 해제 후 73%로 조사됐다. 여기에 온라인 예배까지 포함 시킬 경우 코로나 이전의 80% 수준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교회학교의 경우 거리두기 해제 전 현장 예배 참여 수준은 코로나 이전 대비 38%였는데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4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장년 현장 예배 참석률(7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교회학교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개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학교가 한 국교회의 최대의 피해자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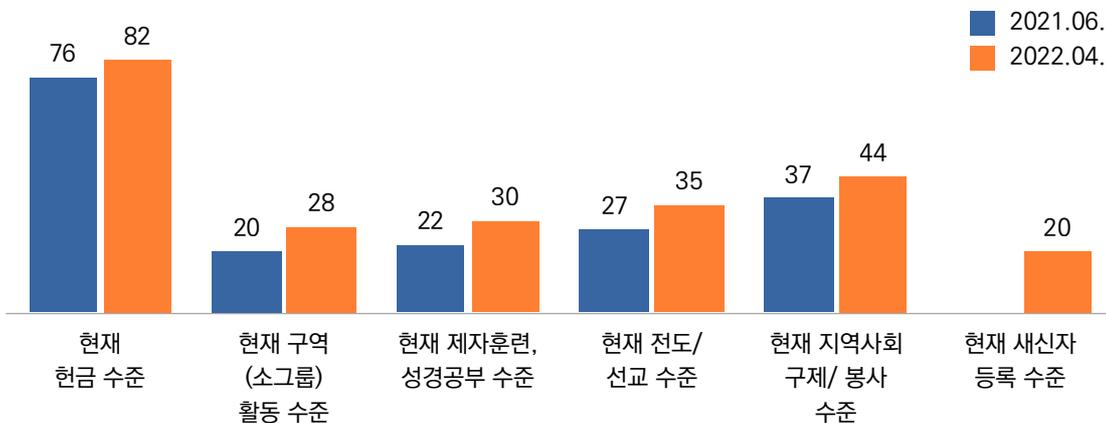
[그림]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코로나19 이전 대비 예배 참석 정도 (코로나19 이전 100% 기준, 평균)



◎ 교회의 중요 사역, 헌금(82%) 외에는 대부분 코로나 이전 대비 20~40%대 수준!

- ▶ 코로나 이전 사역 상태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각 사역별 현재 상태를 살펴보았다.
- ▶ '헌금 수준'이 82%로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 구제/봉사 수준' 44%, '전도/선교 수준' 35%, '제자훈련, 성경공부 수준' 30%, '소그룹 활동 수준' 28%로 나타나 작년 6월 조사에 비해 상승하긴 했으나, 대부분 코로나 이전 대비 20~40% 수준에 머물렀다.
- ▶ 새신자 등록은 코로나 이전의 20%로, 코로나 이후 새신자 유입이 매우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사역 정도 (코로나19 이전 100% 기준,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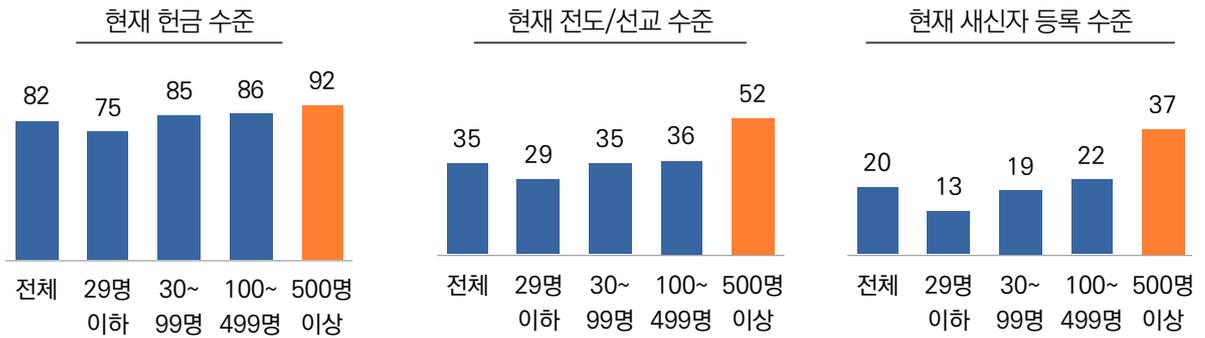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8.1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담임목사 891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30)
 **새신자 등록 수준은 2021년도에는 조사하지 않았음.

◎ 교회의 주요 사역들, 대형 교회일수록 회복력 빨라!

- ▶ 코로나 이전 대비 각 사역별 현재 상태를 교회 규모별로도 비교해 보았다.
- ▶ 먼저 '헌금 수준'의 경우 '500명 이상의 교회'는 92%, '100~499명' 86%, '30~99명' 85%, '29명 이하'는 75%로 나타나 교회 규모가 클수록 헌금 수준 회복력이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 ▶ 또한 '전도/선교 수준', '새신자 등록 수준' 등에서도 교회 규모가 클수록 코로나 이전 대비 회복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사역 정도 (코로나19 이전 100% 기준, 평균, 교회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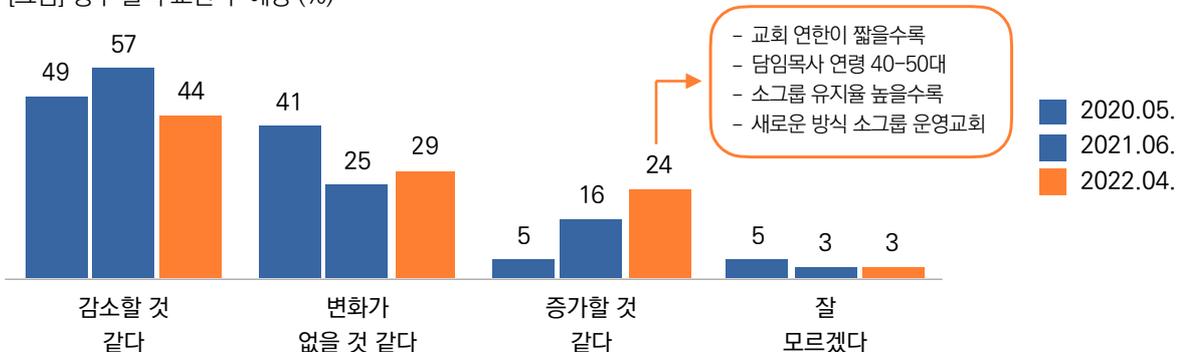


02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앞으로 출석 교인 수 '증가할 것 같다'. 16%(2021년) → 24%(2022년)로 높아져!

- ▶ 목회자들에게 거리두기 해제 후 출석 교인 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어떻게 될 거라 예상하는지를 물었다.
- ▶ 작년 결과와 같이 '감소할 것 같다'는 응답률(44%)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과 비교 시 줄었고, '증가할 것 같다'는 응답이 24%로 2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5% → 16% → 24%)를 보였다. 향후 출석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다고 자신감있는 목회자가 작년보다 크게 높아진 점이 고무적이다.
- ▶ '교인수가 증가할 것 같다'는 교회를 상세 분석해 보면, 교회 연한이 짧을수록, 담임목사 연령이 낮을수록, 코로나 이전 대비 소그룹 유지율이 높을수록, 교회 내 소그룹이 전통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 ▶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코로나 이후 교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향후 출석 교인 수 예상 (%)



*2020.05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통합 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조사(전국 통합 소속 담임목사 1135명, 모바일조사, 2020.05.28.-0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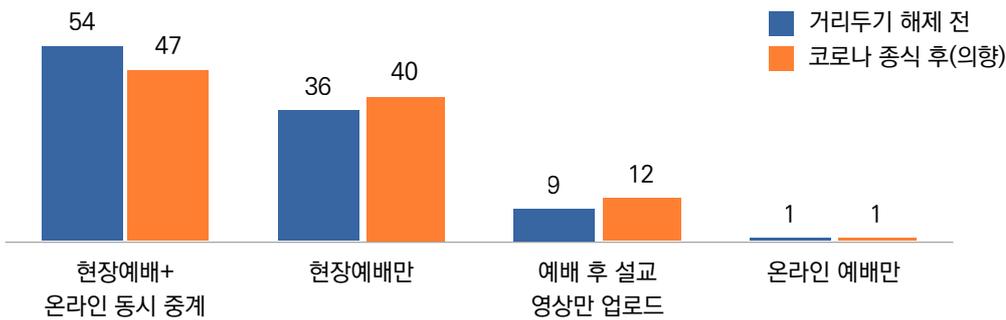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연구원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8.1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담임목사 891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30)

03

주일 예배 실시간 온라인 중계 비율, 거리두기 해제 전 54% → 코로나 종식 후 의향 47%로 7%포인트 줄어!

- ▶ 거리두기 해제 전 주일 예배 형태를 묻은 결과, '현장예배+온라인 중계'가 54%로 가장 많았고, '현장예배만' 드리는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 ▶ 이번에는 향후 코로나 종식 후 주일예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현장예배+온라인중계' 비율이 47%로 나타나 거리두기 해제 이전보다 7%포인트 줄었다.
- ▶ 즉 현재 온오프라인 동시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100으로 보았을 때 그 중 코로나 종식 후 13%의 교회는 온라인을 중시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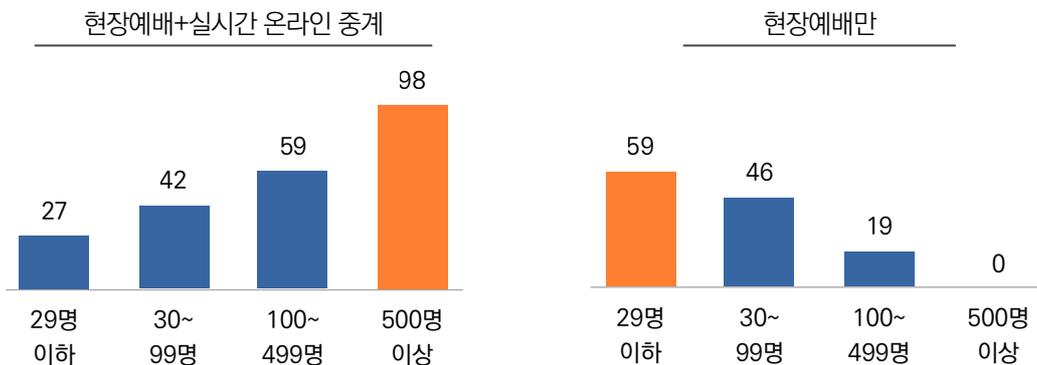
[그림] 거리두기 해제 전 주일 예배 형태 vs 코로나 종식 후 주일예배 운영 의향 (%)



◎ 소형 교회일수록 코로나 종식 후에도 '현장예배' 의향 높아

- ▶ 향후 주일 예배 운영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를 조사하여, 교회 규모별로 살펴보았다.
- ▶ 교인 수(장년기준) '500명 이상'의 대형 교회의 경우 98%가 '현장예배+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계획하고 있는 반면, '29명 이하' 소형 교회의 경우 현장예배와 온라인을 동시중계 하겠다는 응답률이 27%에 그쳤다.
- ▶ 반면, 현장 예배만 드리겠다는 의향은 29명 이하 소형 교회의 경우 59%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림] 코로나 종식 후 주일 예배 운영 계획 (교회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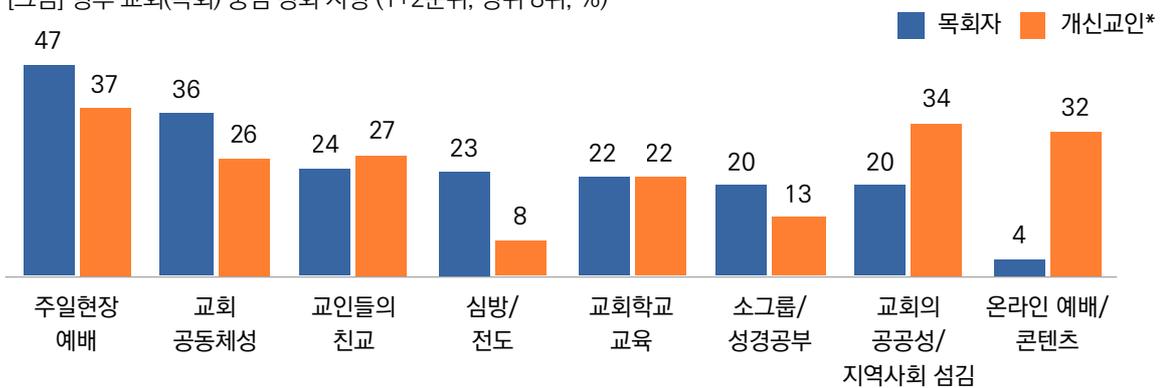


04

향후 교회(목회) 중점 분야, 목회자/성도 모두 '주일 현장 예배'를 1위로 꼽아 성도들은 지역사회 섬김과 온라인 강화 목소리가 목회자보다 훨씬 높음

- ▶ 향후 교회(목회)의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목회자와 성도 두 그룹 모두 '주일 현장 예배'를 가장 많이 꼽았다.
- ▶ 다음 응답 순위부터는 목회자와 개신교인 두 그룹 간 차이를 보였는데, 목회자는 2위가 '교회 공동체성', 3위 '교인들의 친교'인데 반해 개신교인은 '교회의 공공성/지역사회 섬김', '온라인 예배/콘텐츠' 순으로 나타났다.
- ▶ 목회자와 개신교인 모두 '주일 현장 예배' 즉, 말씀에 중점을 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목회자들의 경우 '교회의 본질'(공동체성, 친교, 전도 등)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고, 성도들은 '교회의 공적 역할'과 온라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림] 향후 교회(목회) 중점 강화 사항 (1+2순위, 상위 8위, %)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개신교인 4차)', 2022.05.25.(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2.04.15.~04.25)

◎ 향후 목회 중점 세대, '3040세대'!

- ▶ 목회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어느 세대에 목회적 중점을 두고 싶을까?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회의 허리세대인 '3040세대'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회학교/청소년' 23%, 'MZ세대' 10%가 그 뒤를 이었다.
- ▶ 코로나 이후 젊은세대의 이탈과 관련 각종 세미나에서 MZ세대에 대한 많은 연구와 강조들이 있어 왔는데 실제 현장 목회자들은 MZ세대를 목회 우선순위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점이 주목된다.

[그림] 향후 목회 중점 세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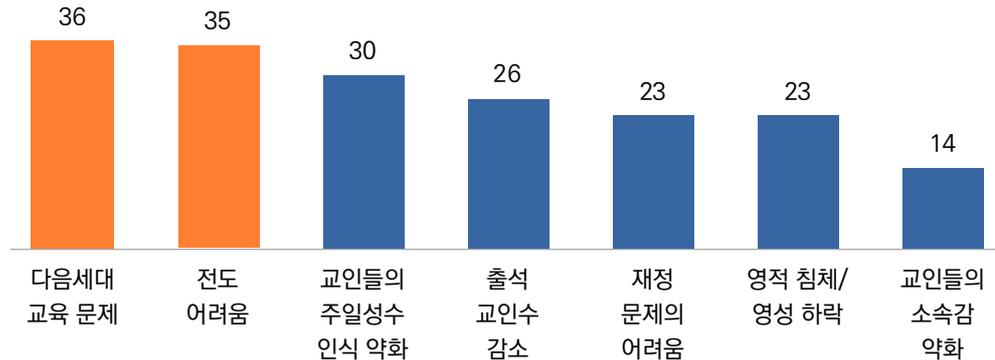


05

목회자가 꿈은 현재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 '다음세대 교육'과 '전도'!

- ▶ 현재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목회자들은 이에 대해 '다음세대 교육 문제'(36%)와 '전도 어려움'(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앞에서 교회학교와 새신자의 저조한 유입률을 살펴보았는데, 목회자들 역시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또한 '교인들의 주일성수 인식 약화'에 따라 '출석교인 수가 감소'하고, 또 그에 따라 '재정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등 도미노 현상처럼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현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 (1+2순위,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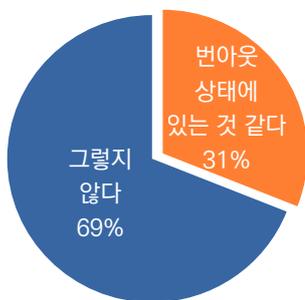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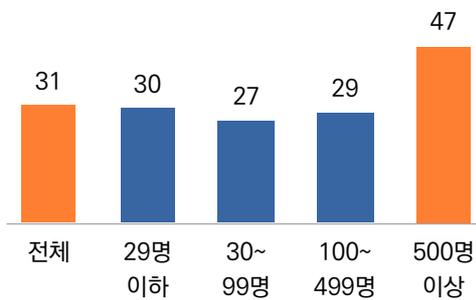
교인 500명 이상 대형교회, 목회자(담임목사) 2명 중 1명 '번아웃 상태'!

- ▶ '번아웃'이란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며 무력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 문장을 제시한 후 현재 목회자들이 얼마나 번아웃을 겪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 ▶ 그 결과, 목회자(담임목사) 10명 중 3명(31%)은 현재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교회규모 별로 살펴보면 500명 이상의 대형교회 목회자의 경우 무려 절반 가까이(47%)가 '번아웃'을 겪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목회자 번아웃 여부



[그림] 목회자,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교회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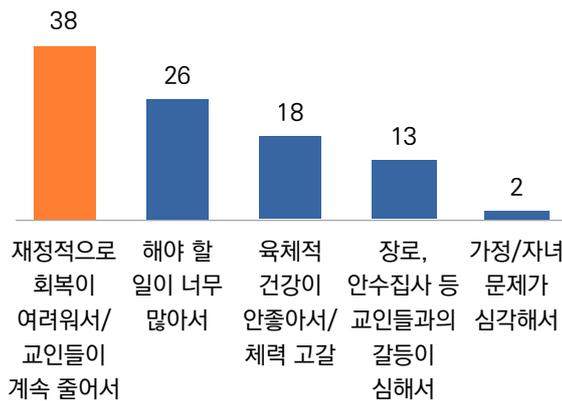


◎ 교회 규모별로 목회자 ‘번아웃’ 이유 차이 보여!

- 99명 이하 교회 ‘재정/교인 감소’, 500명 이상 교회 ‘업무량 과다’

- ▶ 번아웃 이유로는 ‘재정적으로 회복이 어려워/교인들이 계속 줄어들어서’가 38%로 가장 많이 지적됐고,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육체적 건강이 안좋아서’, ‘교인들과의 갈등이 심해서’ 순으로 응답됐다.
- ▶ 번아웃 이유는 교회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99명 이하’의 교회 목회자는 50% 이상이 ‘재정적으로 회복이 어려워/교인들이 계속 줄어들어서’를, 그 외 ‘100~499명’과 ‘500명 이상’ 교회의 경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를 가장 많이 꼽아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목회자 번아웃 이유
(현재 번아웃 상태인 목회자, 상위 5위, %)



[표] 목회자 번아웃 이유
(교회규모별, 현재 번아웃 상태인 목회자, %)

교회규모(장년)	1위	2위
29명 이하	재정/교인감소 (56%)	체력 고갈 (18%)
30~99명	재정/교인감소 (50%)	할일 너무 많음 (20%)
100~499명	할일 너무 많음 (32%)	교인과의 갈등 (28%)
500명 이상	할일 너무 많음 (48%)	체력 고갈 (28%)

07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양극화 급격하게 진행 중!

- ▶ 교회의 재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목회자들에게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99명 이하 소형교회는 감소 비율이 증가 비율보다 높았고, 반대로 500명 이상 대형교회는 증가비율이 감소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 이런 영향은 올해 재정형편으로 연결되는데,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해 99명 이하 교회는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고, 100명 이상 교회는 여유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 ▶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형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대형교회는 여유가 있는 양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작년 대비 올해 교회 예산 변화 (교회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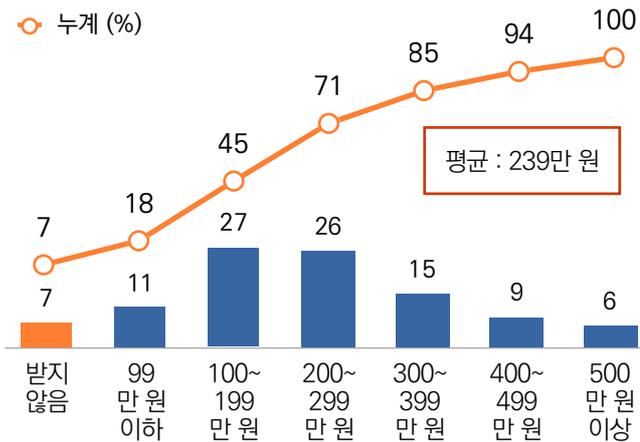
[그림] 현재 교회 재정 상태 (교회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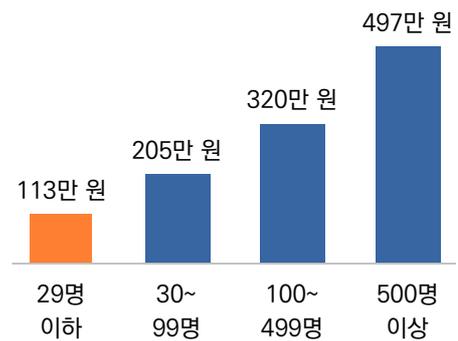
◎ 목회자(담임목사)의 45%, 근로자 최저임금수준 이하의 사례비를 받고 있어!

- ▶ 목회자(담임목사) 월 사례비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월 평균 239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아예 받지 않는 비율이 7%였고, 500만 원 이상되는 목회자는 6%였다. 전체적으로 45%의 목회자가 월 199만 원(근로자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월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근로자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무 월 191만 원)
- ▶ 교회 규모별로 살펴보면 29명 이하 소형교회는 월 평균 113만원, 500명 이상 대형교회는 497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림] 월 사례비 (전체 목회자 기준, %)



[그림] 월 사례비 (교회규모별, 받지않음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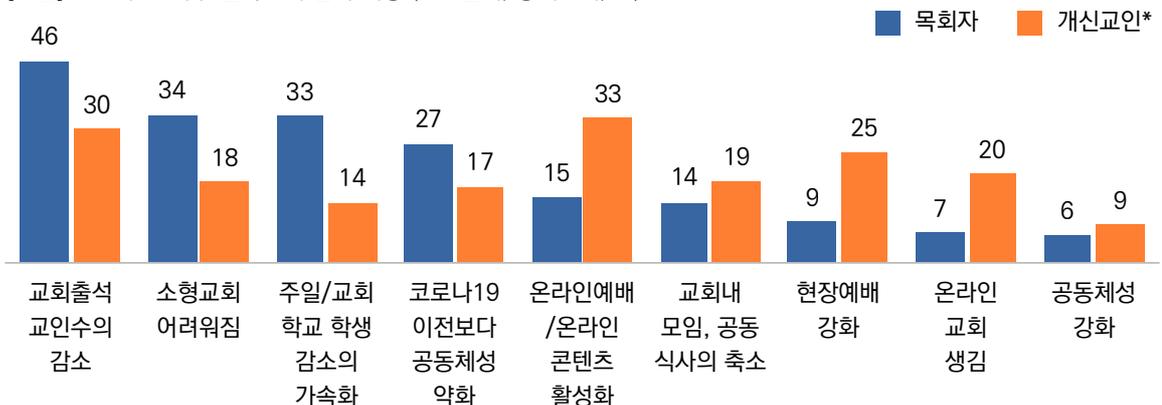


08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한국교회 변화, 목회자는 ‘출석 교인 수 감소’, 성도는 ‘온라인 활성화’!

- ▶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한국교회의 변화로 목회자는 ‘출석 교인 수 감소’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소형교회 어려워짐’, ‘교회학교 학생 감소 가속화’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 한편,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콘텐츠 활성화’가 가장 높았고, ‘온라인 교회 생김’ 비율도 높아 ‘온라인 예배’에 대한 관심이 큼을 알 수 있다.
- ▶ 이번 조사에서 ‘공동체성 약화’와 ‘공동체성 강화’라는 반대 항목을 함께 제시했는데 목회자와 개신교인 모두 공동체성 강화보다는 약화 예상이 더 높았던 점이 눈에 띈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예상 (1+2순위, 상위 9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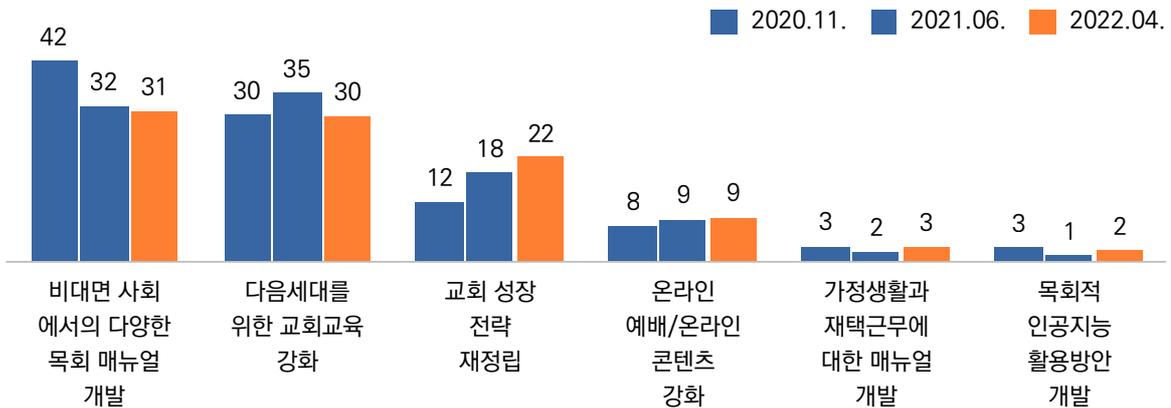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개신교인 4차)', 2022.05.25.(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2.04.15.-04.25)

◎ 미래 목회 준비, ‘교회성장 전략 재정립’ 필요성 지속적으로 증가

- ▶ 앞으로의 미래목회 준비 방향으로 ‘비대면 사회의 다양한 목회 매뉴얼 개발’과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강화’가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교회 성장 전략 재정립’에 대한 응답률이 매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 ▶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어려움을 극복·개선하기 위한 총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교회 성장 세미나 및 컨설팅 제공 등) 모색이 요구된다.

[그림] 미래 목회 준비 사항 (%)



*2020.11 : 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전국 담임목사 480명)
 - 총 600명 목회자(담임+부목사)를 조사했으나, 여기서는 비교를 위해 담임목사 Data만 제시함.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8.1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담임목사 891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30)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다. 남은 규제라고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제 교회의 예배, 모임 등도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포스트코로나19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현상 가운데 하나는 교회 양극화이다. 교회 양극화란 성도들이 대형교회로 몰리고 소형교회는 더 약해지는 현상으로서 교회 성장 정체기에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사실 교회 양극화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다. 2019년 예장통합 교세통계에 따르면 교인 수 10,000명 이상 교회의 비중이 0.2% 밖에 되지 않았고, 교인 수 30명 이하 교회의 비중은 34%나 되었다. 그런데 교회 수로는 전체 교회의 0.2% 밖에 되지 않는 10,000명 이상 교회의 교인수가 예장통합 전체 교인수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교회수의 34%나 되는 30명 이하 교회 교인수는 전체 교인수의 2%에 불과할 정도로 교회 양극화는 심화되어 있다.(넘버즈 67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교세통계 분석' 참조) 이렇게 교회 양극화를 초래한 원인은 교회의 조직 시스템, 교회 시설 및 규모, 설교 및 교육 수준, 재정 상황, 교인 익명성, 교통 편리성으로 인해 원거리 대형 교회 접근성 강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코로나19 이후 교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요인은 교회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자원, 인력 등의 능력이 꼽힌다. 하지만 결정적 요인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예측한다. 코로나19로 초래된 비대면 사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 강화될 것이다. '비대면'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4차산업사회가 낳은 여러 변화이며, 결국 오게 될 미래를 앞당긴 변화이다. 4차산업사회에서 비대면의 확산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비용 절감, 편리성 추구, 사람들의 관계 맺기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가능해진다. 즉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욕구가 기술의 변화에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 '비대면 사회'인 것이다.

만약 교회가 현장예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실

시간 예배를 중단한다면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이와 관해서는 지난 5월 31일 발행된 「넘버즈」 146호와 6월 7일에 발행된 「넘버즈」 147호에 잘 분석되어 있는데, 성도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 등 온라인 콘텐츠 강화를 강화해주길 원하고 있다.(147호 10쪽 참조) 즉 온라인에 대한 욕구가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 만약 출석 교회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57%만이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응답했고, 43%는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146호 7쪽 참조) 현장 예배를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실시간 예배 중단이 의도하지 않게 교인을 떠나보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인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는 촬영, 편집, 송출을 위한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소형교회는 대형교회를 이길 수 없다. 또 대형교회는 온라인 교구, 온라인 교회로 사역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소형교회 성도가 대형교회로 이적하거나 교적은 소형교회에 두면서 대형교회 온라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소속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약화될 수 있다.

교회의 양극화 환경에서 소형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대형 교회 현상과 사역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형 교회가 주지 못하는 효익을 소형교회가 제공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성도들이 대형교회에서 맛볼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대형 교회에서 소외된 성도들이 소형교회에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면 교회 양극화 시대에도 그런 소형 교회는 넉넉히 살아남을 것이다.